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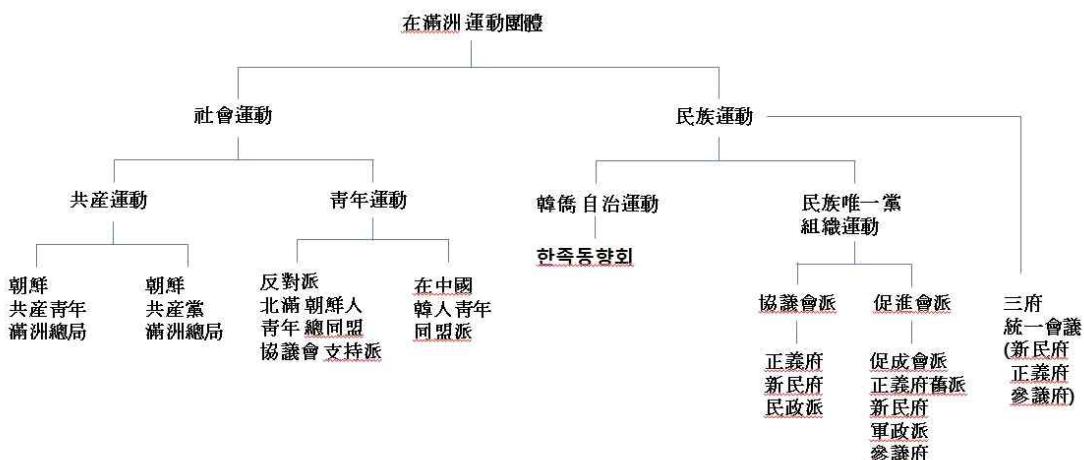
200-3-051. 재중국 한인청년동맹 상황개요

■ 1928년부터 1931년 사이에 함경북도 총독부 경무국장이 경성지법 검사정에 보고한 정보 수록

1. 露領에서 발행하는 不穩책자 譯出

1931년 7월 10일 함경북도 경찰부장이 검사정에 보고한 상기 不穩冊子는 1931년 3월 러시아 太平洋노동조합 비서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조선·일본·중국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임무’와 부록에는 파업전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朝鮮·日本·中國의 革命的 勞動組合의 任務’에서는 북만주지방의 사상운동의 개황,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인 自治허용설, 日本과 러시아의 교섭, 東支那 東線地方의 不逞鮮人狀況, 露領에 있어서의 不逞鮮人狀況, 中國時局에 대한 북만지방의 상황, 勞動政府의 鮮人에 대한 土地分配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1928년 ‘北滿地方居住 朝鮮人 狀況 綜合報告’에 의하면, 민족주의 단체와 社會主義 團體는 統一하려는 氣運이 농후하고 조선민중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민족의 총역량을 統合하고 있다.

A. 在滿洲 運動團體



B. 主義運動

- 1) 赤旗團 組織
 - 2) 高麗共產青年 組織
 - 3) 高麗共產黨 中央組織
 - 4) 青年運動 復興
 - 5) 青年運動 統一과 北滿青年總同盟 組織
2. 北滿地方 思想運動 研究資料

1928년 11월 24일 총독부 경무국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정에게 보고한 정보자료로서, 在中國韓人青年同盟 創立沿革이다. 1924년 12월 吉林省磐石懸에서 南滿青年總同盟 結成, 세포단체 63개, 회원 2,164명 ; 1925년 4월 北滿勞力青年同盟, 大震青年會, 中西青年聯盟 결성, 朱東振외 380名 ; 1926년 5월 北滿青年總同盟, 在東支線朝鮮人青年聯合會, 東一朝鮮人青年聯合會, 阿城青年會, 大同青年會, 五常青年會, 新星青年會, 勞動青年會, 九月青年會 등 18個 團體와 金有聲 외 313명으로 조직되었으며, 기관지 『農軍』 을 발행했다: 大同青年總同盟, 東滿青年總同盟은 1926년 1월 間島 龍井에서 朴載厚 · 金素然



· 李周和 등으로 조직하였고, 가맹은 11個 聯盟, 102個 細胞, 會員 5,000명이고, 中央委員長 崔榮根, 書記 金英鎬이다: 上海在中韓人青年會, 廣東革命青年會, 武昌革命青年會, 北京韓人青年會, 上海鮮人青年會 등이 1927년 11월 上海에서 在中國韓人青年同盟을 結成하여 기관지 『靑年前衛』 을 발행하고, 中央委員長은 趙時元이 맡았다. 1928년 4월 20일 在中國韓人青年總同盟 發起大會를 개최하고 宣言書를 발표하였다.

- 1) 韓人青年의 總結束
- 2) 朝鮮獨立 完成
- 3) 中國 國民運動 直接參加
- 4) 世界革命의 完成
- 5) 帝國主義 戰爭의 危機와 爭鬭